

아나키스트도서관 (Korean)

(성) 노동이너희를자유롭게하리 르... 아니다이악마야!

아나키스트연대

아나키스트연대
(성) 노동이너희를자유롭게하리르... 아니다이악마야!
2020 년 12 월 14 일

<https://blog.naver.com/anarchistleague/222173087922>

kr.theanarchistlibrary.org

2020 년 12 월 14 일

역사적으로포르노그라피는제도와규범에의해억압된시대적인성적욕망의분출이라는혁명적기제였다. 프랑스혁명의과정에서는푸른피를가진존재였던왕공귀족들을붉은피의욕망의대상으로끌어내린그들에대한예동인지가등장한다. 빅토리아시대의영국에서, 그고결한도덕이감추고있는욕망을표현하기위해 < 채털리부인의연인 > 이나왔다.

그리고그렇기에국가는언제나포르노그라피를억압하고통제해왔다. 조선시대의고고하신유자(儒者) 님들부터, 퇴폐미술전을개최한나치독일이그러했고, 혁명러시아가‘그나마’혁명적이던시기이루어진 < 새생활투쟁 > 의성과를철회하신강철의대원수까지, 국가권력은개인의욕망을억압하는것에서부터복종의기제를건설한다. 그렇기에, 조선반도의대통령이어느당에서나오건간에, 각자의방식으로포르노그라피를언제나규제하고, 차단했다.

그리고위대한자본주의의시대가밝았고, 모든것을상품으로만드는그들의앞에서, ‘억압된욕망의분출’마저자본이이윤을창출하는기제가되었다. 사람들은“자본을가진만큼”, “자본이허용하는만큼”자기욕망을분출할수있다. 누군가는자기섹슈얼리티를자본에판매하고, 누군가는자기노동의대가를지불하고그것을산다. 결국이득을보는것은이두노동을중계하는자본이다. 그러니, 국가의규제에는코웃음을치던, 인도정부가유입을규제하자대놓고트위터에우회주소를올리던 Pornhub 이, 마스터카드와비자카드와페이팔이거래를막자급격히정책을바꾼것이아니겠는가.

에르네스토게바라의얼굴이박힌티셔츠를입는것이반미반제공산주의혁명의상징이될수없는것처럼, 포르노그라피는더이상성해방의기제가될수없다. Pornhub 에올라오는, 나체로읽어주는 < 빵의쟁취 > 영상을보는것은결국 Pornhub 이라는포주에게, 그스트리밍을올린스트립클럽에게돈을주는것이지, 아나키즘이될수없듯말이다.

자본은자유롭다. 자본주의사회의지배자가자본이니, 그보다더자유로울수없다. 자본은인간의예속위에자유롭다. 그렇기에‘자유’와‘자본화’는중중혼동된다. 그러다보니아나코-캐피탈리즘이라는끔찍한혼종이등장하기도하고, ‘자유’라는단어가우파에잠식당하기도한다. 그리고이것은성애에있어서도마찬가지다. 성애의자본화, 혹은성노동의비범죄화는, 어느덧성해방담론인양이야기된다. 이번 Pornhub 에대한금융자본의보이콧에있어서도, 그것이성노동자의수입을줄인다는비판이제기된다.

물론국가와자본이성욕을규제하고억압하는것은우스운일이다. 하지만그것이 Pornhub 을무슨성해방투사로만들어주지는않는다. 성해방은“성애(혹은비성애)의자유”에서비롯하는것이지, “성애의자본화”에서비롯하는것이아니기때문이다. “자신의성애를결정할자유”가성해방이지, “타인의성애를돈내고관람할자유”는성해방이아니다.

이렇게이야기하면, 소위“성노동운동가”나, “성자유주의자”님들께서성노동자의생존권이어떻네, 섹슈얼리티의자유로운사용이어떻네이야기하실것을안다. 하지만, 회사가어렵다고, 그회사노동자들이자발적으로입금을깎아가며“상생”하거나일부구조조정을수용하는것을“노동자의자유”라표현하지는않는다. 회사가어렵다고무급연장·야간노동을하는것이자기노동력의자유로운사용이라고하지는않는다. 그저자본에대한예속의강화일뿐이다. 이처럼, 성노동자들이 Pornhub 을옹위하는것역시, 성애의자본에대한예속을강화하는것이될뿐이다.

글을마무리하며, Pornhub 이라는“글로벌포주”에대한규제가, 성노동자들본인의투쟁으로이루어진것이아니라, 더거대한금융자본에의해, 국가에의해이루어진것에대한안타까움을표한다. 성노동자본인들스스로가, 자신의노동을, 혹은타인의섹슈얼리티를착취하고있는“포주”를몰아내고, 자기섹슈얼리티의“자유로운”사용을울부짖을때, 비로소국가로부터도, 자본으로부터도자유로운성해방이도래할수있으리라 믿어의심치않는다.